

# 醫學의 오늘과 來日

서울醫大교수 尹 德 老

## 內 容

1. 緒言
2. 現代의 醫學
3. 韓國 醫學의 問題點
- 1) 韓國 醫學의 沿革
- 2) 韓國 醫學에 있어서의 問題點
4. 未來의 醫學

## 1. 緒 言

—科學의 發展과 醫學—

20世紀 後半期の 科學과 技術은 驚異의인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 19世紀 後半期부터 黎明期에 들어선 近代科學이 數많은 眞理探求에 成功하였으며 이는 人類의 實生活를 刮目할 만큼 變貌시켜주고 便利하게 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 손쉽게 우리의 周圍를 살펴보아도 于先 交通手段의 發展은 世界를 1日 生活圈內로 만드는 것이 可能해져 가고 있고, 電子通信의 發達은 人工衛星의 出現으로 全 世界의 視聽者를 한 家族으로 만드는데 成功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인가! 童謠와 風流詩人의 벗이었던 달에 人類의 발이 드디어 디디어졌으니(1969년) 이는 美國의 Wright 兄弟가 처음 비행에 成功한(1903) 後 不過 66年 밖에는 되지 않은 때의 일이니 航空術, “로켓트” 工學의 發展이야말로 桑田碧海의 感を 주는 것이다. 이에 比해서 生物學의 한 分野로서 醫學 發展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면 Koch, Pasteur, Ehrlich, Virchow 등이 細菌學, 病理學의 開花期를 이루게 한 것이 19世紀 末부터였다. Koch가 Cholera 菌을 印度에서 發見(1884)한 것이나 Pasteur가 狂犬病豫防法을 創始한 年代(1885年)나 모두 Wright 兄弟의 비행보다 20年이나 앞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現代의 醫學은 다른 分野가 이루어 놓은 長足の 發展에 比肩할 만한 發達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데는 큰 疑

問이 많다. 19世紀末에 燦爛했던 醫學界의 業績들은 實際 “疾病의 治療”라는 見地에서 볼 때는 그 應用性이 廣範圍하지 못했고 特히 細菌性疾患에 對하여는 Sulfa 劑(獨, Domagk, 1935)의 出現 以前까지는 醫師들의 處方箋은 언제나 無力할 따름이었다. 오늘날 常識化되어 있는 輸血을 可能케 한 血液型(A, B, AB, O型)이 國際會議(1928)에서 命名된 것이 約 40年前의 일이며, 오늘날 細菌感染症에 對한 原因療法의 길을 더 놓은 擴範圍抗生劑(Broad-Spectrum Antibiotics)도 不過 40年前 英國의 Fleming에 依한 Penicillin의 發見으로 그 可能性이 提示되었고 藥劑로서의 普及은 1940年代부터 始作되었으니 歷史로서는 不過 30年밖에 되지 않는다. 其後 Streptomycin이 Waksman(1943)에 依해 發見되고 繼續 새로운 抗生物質이 나와 細菌感染治療에 對하여 劃期的 革新을 期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도 完璧하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微生物感染(各種 嫌氣性細菌, 一部 球菌 및 桿菌, 많은 Virus와 Rickettsia 感染)에 對한 特效藥이 發見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醫學的 問題中 아직도 解決의 실마리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癌, 各種慢性疾患, 惡性血液疾患 또는 遺傳性疾患 등은 高度로 發達되었다는 現代 醫學을 아직도 미웃는듯 人類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留意할 點은 19世紀末에 現代醫學의 基礎가 된 細菌, 病理學 등이 華麗하게 開花했으나 그것이 곧

實用化 되어 治療面의 革新을 가져오지는 못하였고 各種 Vaccine 製造를 除外하고는 1940年代에 와서 비로서 그 解決의 실마리가 풀렸다는事實이다. 이처럼 醫學은 다른 分野에 비해 理論의 確立과 實際 應用 사이에는 相當한 遲滯이 있었던 것이다. 1969年度에 南阿聯邦의 Barnard 博士가 史上 처음으로 心臟移植手術을 實施함으로써 一躍 世界의 人物이 되고 Sensational 한 話題의 中心이 되어 甚至於는 醫學界에서의 比重이 사람의 달 着陸과 比肩된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Journalism의 解釋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醫學技術(Medical Technology)의 進一步를 意味하는 것이지 獨創의이거나 前人未踏의 醫學의 宿題를 解決하여 數많은 사람의 生命을 一朝에 救濟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新發見은 決코 아닌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19世紀末 細菌學開花時代에 있었던 새로운 細菌染色法發見 程度에 比肩될까? 그러나 現代의 Journalism은 學問의 價値를 Sensationalism과 直結시키는 弊端이 있어 一般은 이에 眩惑되게 마련인 것이다. 오늘날 自然科學分野中 生物學分野의 進步만큼 늦은 것이 없다고 評價되고 醫學도 같은 範疇에 들어 있는 것이다. 20世紀에 있어 醫學의 큰 進展이라면 抗生劑, 輸血, 麻醉法, 消毒法의 發展등을 들 수 있는데 嚴密히 따질때 內容의으로는 醫學技術의 發展이 主였지 根源의 問題의 解決은 아직 研究途上의 것이 大部分인 것이다. 華麗한 施設과 建物, 헤아릴 수 없는 藥劑들의 洪水 그리고 臟器移植과 같은 Sensational 한 話題가 다른 分野 못지 않게 醫學水準이 驚異의 發展을 한 것 같이 보이게 할지 모르나 內容의으로는 허술하다는 評을 免키 어렵다. 이 原因에 對하여는 後述 하겠거니와 또 다른 觀點으로 볼때 이 地球上에서 生을 營爲하는 全人類中 現代醫學의 惠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數가 越等히 많다는 事實이 醫學이 實際面에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 할 것이다. 自家用이 없는 境遇 日常生活上의 不便은 많겠으나 그것으로 生命의 支

障은 없다. 그러나 施設의 未備, 治療法의 未普及 또는 經濟事情等이 어떤 疾患에 對하여 適切한 治療를 받을 機會를 놓치게 하여 生命을 危脅케 하였다면 이는 멀리 살더미를 바라보며 餓死하는 悲劇과 무엇이 다를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現代醫學이 지닌 가실 길 없는 苦悶의 하나이며 醫療의 均霑, 大衆化의 問題가 深刻히 論議되는 理由의 하나인 것이다.

## 2. 現代의 醫學—그 苦悶과 實情

前述한 바와 같이 現代의 醫學은 自體로서 많은 苦悶을 안고 있다. 于先 다른 科學技術分野가 短時日內에 長足の 發展을 하여 왔고 따라서 그 實用性이나 將來性에 있어 엄청난 底力을 誇示하고 있는 反面 生物學의 一分野로써 醫學은 1) 學問水準의 充實度가 內容上 매우 貧弱하였으며 2) 現今까지의 發展의 主內容인 醫學技術의 應用이 主로 經濟水準, 文化水準의 函數가 되어 後進國일수록 先進國에 비해 엄청난 隔差가 있고, 常識化한 醫療惠澤조차도 받지 못해 生命의 危脅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現實의 矛盾을 指摘치 않을 수 없다.

1)의 原因으로서도 다음과 같은 點을 들 수 있다. ① 醫學이란 本來 應用科學分野로써 다른 自然科學分野의 發展에 이어 이를 活用함으로써 그 發展이 可能한 것이 많으며

② 사람의 生命을 다루는 가장 貴重한 分野이면서도 그 自體의 經濟性이 非生産的要素가 많으므로 그 發展에 對한 經濟投資가 活潑치 못해 學術活動이나 實踐面에 있어 遲遲不振이 顯著하였으며 ③ 大部分의 醫學者들이 學問의 性質上 다루는 內容이 現俗의 問題들이 많으므로 먼 將來를 바라보는 自立的 開發意欲이 다른 分野보다 不足하여 學問으로서의 醫學의 內容을 貧弱케 하였으며 ④ 마지막으로 生物學의 現象의 非特異性 때문에 自然科學分野中에서도 解決하여야 할 課題들이 容易해 보이면서도 속 시원한 結論誘導가 어렵다는 點을 들 수 있다.

2)의 原因으로서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醫術施療의 惠澤이 患者에 미치기 前에 于先 가 推어야 할 條件이 多様하기 때문이다. 이를 大別하여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1) 施療의 主體 :

- ① 醫師의 質 및 數
- ② 現代의 病院施設(建物, 治療施設, 治療器具)
- ③ 治療藥物供給 및 備置

(2) 施療의 受惠者 :

- ① 患者나 保護者의 現代醫術에 對한 正確한 理解
- ② 治療費 擔當能力

(3) 施療의 効率化 :

- ① 地域別로 病院과 施療要員 分布의 均衡化(施療需要에 適合한 專門別 施療要員과 病院의 分布)
- ② 迅速하고 效率의 救急網의 完備
- ③ 醫療費에 對한 保障制度의 確立

上記와 같이 施療의 主體, 施療의 受惠者 및 施療의 効率化로 三大別하여 그 問題點을 列擧하여 보았는데 모두 文化, 經濟水準과 關聯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點을 考慮할 때 先進國에 있어서도 現在水準의 醫術의 完備한 均霑化가 어렵거니와 文化的, 經濟의 水準이 낮은 後進國에 있어서는 適切한 醫療惠澤은 地域別, 社會階層別로 매우 不均衡하여 疾病의 呻吟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 것이다.

이처럼 現代의 醫學은 學問의 進步 發展함에 있어 어느 分野보다 많은 隘路를 겪고 있으며 實踐面에 있어서도 國家別, 地域別 隔差가 甚하여 不均衡한 醫療惠澤의 問題를 가지고도 苦悶을 하고 있는 것이다.

### 3. 韓國 醫學의 問題點

#### 1) 韓國 醫學의 沿革

우리는 長久한 歷史를 가진 單一文化民族이라

고 自負하고 있다. 그러나 東洋의 文化中 近代의 科學과 技術이 全般的으로 西洋의 그것에 비해 水準이 낮고 現代에서 通用되는 大部分의 科學的 知識과 技術이 西洋에서 由來 導入된 것이므로 아직도 그 水準이 낮고 自立自律性이 欠如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境遇도 泐洋文化圈에 있어서 例外가 되지는 못하고 있어 西歐醫學이 近代醫學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長久한 時日間 이 나라에 存立하였던 漢方醫學도 一朝一夕에 廢棄되지 못한채 存續해 있어 先進國 醫學界와 다른 一面을 갖고 있다. 이는 東洋各國의 共通된 現象이 겠으나 近代科學的方法論에 立脚한 西歐醫學과 經驗的 漢醫學間에는 妥協하고 併存할 可能性이 稀薄하며 近來 論議되고 있는 漢醫學의 科學的 體系化가 얼마 나 이루어 질 지는 몰라도 結局은 西歐醫學에 吸收되어질 運命에 있지 않은가 보여진다. 오늘날 漢醫學이 그런데로 存立할 수 있는것은 于先 因習에 依해 漢方을 信奉하는 사람이 많이 生存해 있고 또한 西歐醫學이 손대지 않은 分野—大部分이 神秘主義的 趣向이 길으나—에 있어 그 效能이 믿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根本的으로 漢醫學은 人體의 生理 病理 및 病因論에 있어 科學的 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生藥을 中心으로 한 漢藥處方과 各種 醫療術이 科學的 因果에 立脚한 客觀性 있는 根據提示를 못하고 있는 것이 큰 弱點이다.

西歐醫學이 우리나라에 導入되기 始作한 것이 舊韓未이었으며 韓日合併時代에는 獨逸學派가 主였던 日本의 醫學이 우리를 支配하였으며 8·15 解放後에 있어서는 世界醫學을 風靡하고 있는 美國醫學의 影響을 크게 받고 있다.

#### 2) 韓國醫學에 있어서의 問題點

##### (1) 醫療制度

우리나라는 地理的으로 隣接列強의 政治的, 軍事的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는 位置에 있다. 歷史的으로 볼 때 어느 時代이고 隣接한 強大國의 政治的統制를 免키 어려웠다. 모든 다른 文物이

나 制度와 마찬가지로 醫療制度 亦是 強大國의 그것을 模倣 乃至 修正하여 施行하여야 할 處地에 있었다. 이는 三國時代 以來 오늘날까지의 綿綿히 이어 내려온 宿命的 體統으로서 弱少國의 悲哀가 아닐수 없다. 이런 與件때문에 우리의 社會實情에 立脚한 合理的 制度의 確立보다는 오히려 外來制度를 우리의 與件에 맞추어 修正하는 消極的이고 牽強附會의인 點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實際面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矛盾을 避할 수 없었으며 이는 改革刷新에 있어 果敢치 못한 우리 民族性과 함께 痼疾化된 弊端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特히 醫學이 實踐學問으로서 그 存在價値가 確立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實情을 忘却한 外來 制度의 無批判的인 導入은 數 많은 試行錯誤와 齟齬를 거듭 露呈시키고 있다. 8·15 解放 以後 完全히 美國 文化圈에 包含된 우리나라는 諸般制度와 아울러 醫療制度 亦是 美國의 그것을 歪曲踏襲한 것이 많아서 策上施의 混線이 많았고 修正 勸案하여야 할 課題를 數 많이 갖게 하고 있다. 地域社會의 健康管理과 國民醫療에 있어서의 醫療機關의 性格과 機能의 調整이 날로 發展하는 醫術을 均霑하게 베풀어야 함에 있어 큰 難題로 되어 있다. 이 以外에도 醫學教育, 醫師修練 및 專門醫制度 등이 갖고 있는 여러 矛盾點은 우리가 自主性 있는 制度를 確立치 못한 力不足을 痛感케 하고 있으며 이를 果敢하게 是正할 決斷力과 能力의 不足을 慨歎치 않을 수 없다. 이런 結果는 오늘날 우리 나라 醫學界가 갖고 있는 水準이나 底力을 十分 發揮하지 못하게 하는 阻害要素가 되어 있는 同時에 國民醫療의 偏重化에 起因한 醫療不在地域이 總人口數의 1/3이 넘는 悲劇的 事態까지 빚어내고 있다. 醫師의 資質의 多樣性은 過去에 있어 醫師教育이나 資格認定制度가 亂脈이었음에 起因하고 있고 個人醫院 爲主의 診療가 綜合病院 中心으로 옮겨가는 趨勢에 따라 一般開業의 零細化, 醫療術의 投賣行爲 또는 醫療倫理의 頹廢가 顯著해져서 尊敬받을 수 있는 職業에서 沒

廉恥한 背任行爲가 橫行할 수 있는 職業으로 轉落되어 가는 느낌 조차 없지 않다. 우리나라 처럼 醫師의 資質과 醫業의 逆盛行이 關係에 있는 나라라도 드물것이다.

## (2) 醫學水準과 懸案의 課題

36年間の 日帝의 抑壓下에서 最少限의 矜持와 自主性 그리고 經濟的保障을 期待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으뜸이었던 것은 뛰니 뛰니 해도 醫術이었다. 그래서 많은 優秀한 人才가 醫學을 專攻하게 되어 그 學門的 水準은 日帝의 徹底한 差別政策때문에 萎縮될대로 萎縮된 他分野에 비해 比較的 높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水準의 問題란 우리나라의 特殊性에 依한 것인지 世界의 水準에 比해서는 그 隔差가 컸던 것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事情때문에 오늘날 많은 醫學界人士들이 부질없는 幻想의 自尊心과 唯我獨尊的인 獨善主義의 態度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世評을 듣고 있다. 오늘날 既成醫師의 相當數가 日帝時代에 醫學教育을 받은 사람들로 構成되어 있는데 個個人의 差는 있으나 새로운 醫學知識을 充分히 習得할 機會가 적은 醫療人이 相當數에 達하며 더우기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醫學의 役割에 對한 理解에 있어 未洽한 點이 많은 否定하기 어렵다. 特히 19世紀 後半期에 空前의 盛況期속에서 醫學의 基礎的 研究의 찬란한 業績과 社會的 評價의 先例를 잊지 못한 獨逸 醫學의 傳統的인 眞理探求爲主의 醫學研究態度가 오늘날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基礎醫學과 臨床醫學이 무슨 別個의 分野처럼 獨立되어 서로를 輕視하고 批判하는 一因이 되고 있으며 研究의 課題 亦是 現實的 應用性을 떠난 獨創性(Originality) 爲主로 흘러 實用 應用. 性色彩가 짙은 醫學의 水準向上에 크게 寄與함이 없이 時間, 精力의 浪費만을 거듭하고 있다는 批判을 듣고 있다. 特히 現代의 다른 科學技術分野의 눈부신 發展으로 診斷, 治療 研究를 爲한 各種 特殊器機가 日進月步하는 版局에 理論에만 치우치고 實際에 弱한 우리 나라 醫學은 司令部만 있는 國

防力은 聯想케 하고 있다. 醫科大學의 教育內容이나 醫師의 修練內容의 目標은 世界의 最新을 달리면서 自身의 힘으로는 變換한 聽診器나 血壓計 하나 生産치 못하고 있으며 古色蒼然한 施設을 가지고 現代의 醫療技術은 適用코져 하니 이는 이만 저만한 二律背反이 아니며 特히 醫學界의 關心을 끄는 研究의 課題가 우리나라 現實情에서 時急한 汎國民의 疾患에는 오히려 外面하고 그 發生數가 적은 物殊疾患에만 關心을 쏟고 있는 것이 現實情이다. 우리에게 癌에 關한 研究가 時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國民의 大部分이 罹患되어 있는 寄生蟲疾患에 對한 對策研究가 더 必要한가 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大部分의 醫學者나 醫師는 格調높다고 認定받는 癌研究에 關心을 보이지 너무나 通俗的인 寄生蟲疾患에는 興味를 表示하지 않기가 十中八九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이미 그 管理에 成功한 많은 傳染性疾患과 風土病에 있어 世界의 王國이란 差恥스런 汚名을 벗지 못하고 그 成果가 遲遲不振한 原因의 하나라 生覺된다. 現實의 問題에 對한 偏倒된 價値觀과 學門的 虛榮心 때문에 現今에도 어느 分野보다 많은 人材와 熱誠的인 學究的 雰圍氣가 造成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나라 醫學水準이 踏步하고 있는 現實은 안타까운 일이다. 現實의 透視를 通하여 오늘날 韓國의 實情이 醫學界에 要求하고 있고 救援을 要請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適切히 把握하여 이를 解決코져 粉骨粹身하는 使命感의 發揮를 韓國의 醫學界가 보일 時期에 이르렀다고 筆者는 믿는 바이다.

#### 4. 未來의 醫學

加速的으로 急進하는 現代醫學이 實生活上 큰 變革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따라 人間의 生活觀, 價値觀도 急速하게 變化해 가고 있다. 人間社會의 安寧과 秩序를 위해 마련된 여러 制度도 이런 急變하는 狀況에 對應키 爲해서 伸縮自在한 變更改正이 必要하며, 새로운 事態에 對決키 爲해서

는 不斷한 研究檢討가 있어야 될 것이다. 未來學이라는 새로운 分野가 생겨 난 것도 이런 現實에서은 時代的 要請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前述한 바와 같은 여러 難題를 안고 있는 醫學의 未來를 어떻게 占칠 수 있을까?

1) 1990年 以後는 醫學의 奇蹟時代—많은 專門家나 未來學者는 1990年代에 醫學 및 生物學界에 있어 여러가지 奇蹟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豫見하고 있다.

(1) 臟器移植: 現在까지 皮膚, 角膜, 腎臟 및 心臟 等 局限된 臟器移植의 範圍에서 全身의 臟器移植이 可能해 지고 活發해 질 것으로 豫見되고 있다. 特히 現在의 治療法으로 고칠 수 없는 疾患으로 死亡한 사람을 곧 冷凍시켜 治療가 可能한 時期에 되살리려는 企圖가 成功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現在 美國에 있어서는 屍體冷凍貯藏이 實際 施行되고 있어 그 希望者가 增加一路에 있다는 것이다. 全面的인 臟器移植의 成功은 生死에 對한 우리의 觀念을 根本的으로 뒤엎을 可能性이 있으며 生命의 個體性의 定義가 論議된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前述한 보와 같이 이는 醫學技術이 高度로 發達되었다는 證左로서 그 意義가 크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全體人類에 對한 醫療로서의 寄與度는 深大치 못할 것으로 豫見된다.

(2) 疾病의 治療: 現在 活潑히 進行되어 많은 成果를 올린 바 있는 核酸의 研究成果는 癌, 各種 遺傳性 疾患 또는 血液疾患의 病因이 밝혀지고 根源의 治療法이 開發될 것이라는 希望을 받게 해주고 있다. 萬若 이런 期待가 제대로 成就된다면 醫學界로서는 有史以來 풀지 못한 큰 課題를 克服하는 셈이며 이것으로 해서 人類가 받게 되는 惠澤은 醫學史에 새로운 里程碑가 될 程度로 클 것이다.

(3) 各種 人工臟器의 出現: 現在 우리가 쓰고 있는 人工臟器란 極히 局限된 生體臟器의 一部 機能을 代身하고 있는 것에 不過하다. 그러나 機能面이 있어 거의 生體臟器와 比等한 것이 이 時

代에는 製造 使用 될 수 있을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그 中에서 代表的인 것이 人工子宮에 依한 胎兒發育은 女性이 갖고 있는 가장 큰 生體機能인 妊娠, 生産의 手筈을 代身하게 될 것이다. 그 必要性이나 効用을 論하기 前에 이것이 可能해지고 廣範圍하게 實踐될 境遇, 人間이 겪게 될 人生自體에 對한 諸觀念의 根源의 變革과 混亂은 現今으로서는 想像하기 조차 어렵다.

(4) 電子醫學時代의 開花——最近의 電子工學의 發展은 우리의 日常生活을 크게 變化시켜 주고 있다. 이런 電子工學의 發達로 診斷用, 治療用醫療器械의 發展이 눈부실 것이다. 現今까지 醫師를 비룡한 相當한 醫療人이 擔當하여야 했던 役割의 많은 部分을 이 電子器機가 代身해 줄 公算이 크다. 特히 電子頭腦를 活用하여 各種 臨床檢査 結果에 對한 正確한 判斷과 綜合的 診斷이 可能하여 질 것이며 現在까지는 그 費用이나 測定時間 때문에 實施 못하던 特殊 臨床檢査가 日常化되어 한 血液 Sample로 數個의 檢査 밖에 못하던 것이 數十項目으로 擴大될 것이 期待된다. 이런 電子器機의 發達은 이제 病院이란 病者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健康診斷, 早期診斷을 받으려는 健康人이 더 많이 모이는 곳으로 될 것이라는 豫想은 可能케 하고 있다. 또한 電子醫學의 發達로 精巧한 “로봇트” 人間이 製造되어 사람이 하던 일을 많이 代身할 것이 期待되며 特히 機械的인 作業이나 職種은 사람이 必要없게 될 것 같다. 이는 人間의 身體的負擔을 크게 줄여 주며 보다 安樂한 生活을 할 수 있는 餘裕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電子醫學의 큰 目標의 하나인 生體情報의 蒐集과 分析이 이 時代에 完璧

해 질 것으로 豫見되고 있다. 人間의 思考內容이 電子情報裝置로 誘導되어 解釋될 수 있게 되면 여러가지 神秘스럽게 여겨지던 事實이 밝혀질 可能性이 높다. 사람이 死亡하였을때 數時間內에는 腦細胞가 아직 生存하고 있기 때문에 死亡者로부터 情報를 얻어 내어 死亡 前後의 狀況을 알아낼 수 있을 可能性이 있다. “죽은 者에게 입이 없다”라는 말이 있고, 많은 殺人事件이 迷宮에 빠진 現代犯罪搜查의 隘路가 이 時代에 있어서는 一掃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1990年代는 人類史上 가장 華麗하면서도 怪奇에 찬 일들이 醫學界에 일어날 可能性이 크다. 그 어느 것은 數千年來의 醫學界의 宿題를 풀어 주는 것인가 하면 그 어느 것은 오히려 골치 아픈 副作用을 併發시킬 可能性도 큰 것이다. 如何間 醫學의 變貌가 무서울 程度가 되리라는 것이 時代를 豫見하는 專門家들의 綜合된 意見이다.

이런 醫學界의 새로운 變化와 함께 人間社會에 있어서도 各種 病病의 發生樣狀이 크게 달라질 것이 豫想된다. 새로운 生活環境과 生活條件의 造成에 따라 過去에 흔했던 病은 줄어들고 새로운 病病이나 醫學的 問題가 擡頭될 公算이 크다. 아마도 死亡順位에 있어 交通事故를 비롯한 各種 事故死가 首位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各種 公害에 起因한 疾病들이 問題化 될 것이다. 紊亂해진 性道德도 새로운 醫學的 門題를 提起할지도 모른다.

一言而蔽之하여 未來의 醫學은 復雜, 多端의 一言으로 表現될 수 있는 것이다.